

배포일시	2020. 9. 29.(화) 10:0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국제협력담당관	담당자	과장 이 용 섭 사무관 김 병 철
		전화번호	02-2181-0372 02-2181-0373

김종석 기상청장, '제72차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회' 화상회의 참석

- 세계기상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 논의 -

□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인 김종석 기상청장은 9월 28일(월)~10월 2일(금) 동안 열리는 '제72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''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28일 참석하였다.

*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회: 세계기상기구의 예산과 각종 사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핵심 집행기구로 193개 회원국 중 37개국의 위원으로 구성되며, 지역별로 배정된 의석수에 따라 각국 기상청장이 위원을 맡음

○ 이번 회의는 △페테리 탈라스(Petteri Taalas)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△게하드 아드리안(Gerhard Adrian) 세계기상기구 의장 △부의장(3인)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37개국 기상청장이 참석했다.

□ 이번 회의에서는 인류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상예보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, 현재 진행 중인 세계기상기구 조직개편 후속 작업과 2021년 예정인 세계기상기구 특별총회 준비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룬다.

- 주요 의제는 △세계기상기구 기술위원회 하부조직 구성에 대한 경과보고
△2021년 특별총회 준비사항 점검(조직개편 과도기 계획 및 소통전략, 데이터 정책 등)
△제18차 총회 결정 이행 △국제기상기구(IMO)상 수상자 선정 △지역협의회 개편에 대한 사항이다.

- 김종석 기상청장은 “한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으나,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, 최근 집중호우, 태풍 등 기상재해가 빈발하면서 국민의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”라며, “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상예보서비스 발전을 위해 미국, 일본, 영국, 독일 등 주요국과의 태풍예측 기술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”라고 말했다.

- 붙임: 제72차 세계기상기구(WMO) 집행이사회 화상회의 사진



| 제72차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회 화상회의에 참석 중인 김종석 기상청장 (9. 28. 기상청 대회의실) |